

‘천사의 섬’에서 하룻밤... ‘섬스럽게’ 신청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오는 7월 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신안 비금·도초도에서 ‘섬스럽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섬스럽게’는 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갯벌 탐사, 염전 체험, 어류 탐사, 섬 명소 관광, 전통 체험 등을 하는 가족 단위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뒤 올해로 3회째다. 도시에서 하기 어려운 체험과 섬 주제의 프로그램 등이 다양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올해 참가자 모집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섬스럽게’ 프로그램에 참가해 갯벌체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남도 증가음식문화 계승 머리 맞대

도 ‘전남증가 학술 심포지엄’...“체계적 발굴·발전 시급” 한목소리

고령화 등으로 전승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남도 증가 음식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계승·발전 시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홍렬 정주대 교수는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8회 전남증가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록과 실재를 통해 본 전남증가 음식문화 계승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증가음식문화 전승의 문제점과 원인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증가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조선시대 호남지역 조리서로는 최초 발굴된 ‘음식보’ 기증자인 홍명석 종손을 비롯한 전남·영남 증가학회 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으로 보는 남도 증가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살림살이문화(생활문화)를 대표하는 증가의 음식문화는 의례음

식(봉제사)·접빈음식(접빈객)·일상음식(생활음식) 등으로 나뉘는데 일상음식의 경우 증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음식(식재료·조리법) ▲식기구(취·조리·저장·운반) ▲식문화공간(조리·가공·저장·향유) ▲스토리(유래·인물·에피소드) 등으로 나눠 관련 기록물을 확인하고 21개 증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전남지역 증가의 음식문화의 특징과 전승 현황 등을 조사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조선 영조시대인 1756년 나주 도래마을 풍산홍씨 가문의 종부와 며느리에 의해 집필된 조리서로 호남지역 조리서로는 최초 발견된 기록물인 음식보, 1800년대 중반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로 집필된 음식서인 하심당가 음식법 등에서 나타난 음식 본고장 전라도의 위상

을 소개하고 남도 전통음식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도 증가의 음식·술의 경우 다른 지역과 기록에 없는 음식·조리법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한 쌀문화권 양조법을 엿볼 수 있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승(傳承)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또 ▲증가 생활문화가 제대로 전승되는 가문이 많지 않고 ▲일상 음식이 제대로 전승된 증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소수의 증가에서만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승 음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계승·발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점을 들어 “증가음식문화 조사를 통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면서 전승·계승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계승·발전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외식산업·가공식품 개발, 관광상품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물장어 곤충사료 공동 연구개발 추진

민물고기연구소 등 도내 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민물고기연구소와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가 곤충산업 활성화와 민물장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곤충사료 개발 공동연구를 시작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새로운 민물장어 양식용 곤충사

료는 대표적인 산업용 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에서 추출한 유용 단백질 성분 등을 배합사료에 첨가해 성장률과 내병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명 민물장어로 불리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는 민물에서 5~10여년간 살다가 8~10월에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깊은 바다로 내려가 심해에서 알을 낳는 강하성 어종이다.

유용곤충인 쌍별귀뚜라미와 풀무치는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용곤충으로 소고기의 3배, 계란의 5배 이상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밖에도 필수아미노산과 칼륨, 인,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연구가 완료되면 유용곤충 2종을 첨가한 민물장어용 사료가 개발돼 곤충농가와 민물장어 어가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 외국인 근로정착 환경 조성 온힘

고용 업체 등 간담회...안정적 인력공급·주거지원 등 논의

전남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정착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영암군 대불산단복합문화센터에서 18개 외국인 고용 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함께 생활하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안정적인 근로·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의 외국인 지원정책과 기업별 외국인 고용 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인 인력 공급 ▲주거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통·번역 지원 등 근로·정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맞춤형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도 수렴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 올해 8월부터 추진하는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체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운영’에 반영하고 산업별 외국인력 공급·관리 방안, 외국인 유입·정착·통합 방안, 중장기 정주화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광역단체장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체류 관리 권한 등을 부여하는 광역비자 도입 및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필요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지역특화비자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외국인 일자리박람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손잡은 영·호남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제’가 개막한 지난 24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남·경북 100인의 합창단과 함께 영·호남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화합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논의 본격화

장흥에 들어서는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9일 장흥군청에서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 장흥군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장흥읍 금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국립장흥호국원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가족과 방문객에게는 추모와 치유의 공간

으로 조성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장흥호국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장흥군과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법령상 규제 해제 등을 노력하고 장흥군은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오는 2026년 착공,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97억 원을 투입해 2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복지기동대 힐링 캠프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소속 대원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열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힐링캠프’가 24일에 이어 27~28일 3회에 걸쳐 120명의 기동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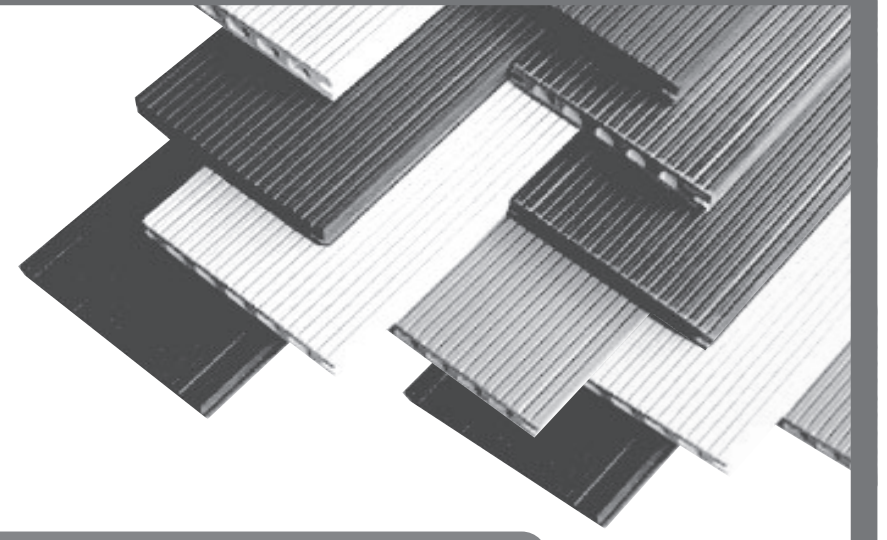
올해는 1·2부로 나뉘어 휴식과 소통이 있는 맛

충형 해양 치유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개인별 맞춤 처방에 따른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고 2부는 22개 시·군 특화사업과 우수활동 사례 공유, 기동대원 상호 소통과 화합의 시간 복지기동대의 이같은 활동은 행정안전부의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우수사례(2021년)와 제 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2022년) 수상 등으로 이어졌고 올해도 전북과 대구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문이 기다리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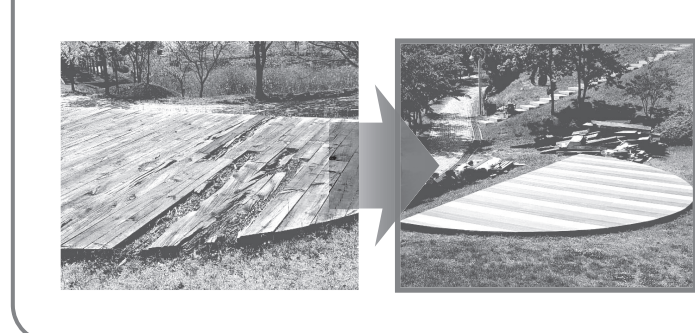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